

이재명 후보 “죽지 않고 죽을 힘 다해 새 나라 만들겠다”

텃밭 전북 민심에 지지 호소
“계엄군 막은 것은 바로 국민”
“농촌 기본소득 어렵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전북 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호남 민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민주당의 움직임은 긴박해졌지만, 이 후보는 애초 계획했던 지방순회 일정을 변경 없이 소화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이 후보가 대법원 판결로 다시 부상한 사법리스크에도 ‘준비된 후보’로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세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탄핵소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움직임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게 중도층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 역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는 진안군을 찾아 골목상권 상인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이 어려운 게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원해주면 갈조림집, 식당 등 다 장사가 잘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퍼주기라고 하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쓰는 것인데) 퍼주는 무슨 퍼주기인가”라며 “도둑질하고, 훔쳐먹고, 해외 원조하고

이런 데에는 돈을 많이 쓰면서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은 왜 그렇게 아까워하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또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이 심장과 머리만 커지고 손발이 썩으면 살 수가 있겠나. (지방)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는 현장에서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듯 “죽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다. 총을 든, 폭탄을 든 계엄군을 막은 것이 바로 국민 아닌가”라며 “우리 위대한 국민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국내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로지 머리에 든 것이라고는 ‘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내 정적을 어떻게 죽여볼까’, ‘내 가족과 친구의 범죄를 어떻게 덮어볼까’ 하는 것뿐”이라며 “그러다 결국 생각해진 것이 비사계열 내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담배막에 대고 고함이라도 쳐라’”라고 말씀했다. 행동을 합시다”라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중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한 지지자가 든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축하 팻말에 사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AI 활용 재난안전기술 개발 쟁결음

5개년 종합계획 용역 완료
148억 투입...안전 대응 ↑

광주시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나선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고 사업비 148억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9대 주요 과제를 시행한다.

3대 추진전략은 △지역재난안전산업 기반 강화 △연구기술·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 △지역 재난안전 기업육성 및 지속성장 등이다.

9대 주요 과제로는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재난안전산업센터 운

영 △AI·ICT 기반 재난안전 제품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재난안전산업 R&D 지원 확대 △시험·평가·인증 지원체계 구축 △재난안전기술 상용화 및 판로개척 △재난안전산업 ESG경영 기업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시는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3대 추진 전략과 9대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강점인 AI·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해 중소기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산업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난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지속가능한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광주시는 AI,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기반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난안전산업은 후발 영역으로 시장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는 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광주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제주항공 피해자 등 연장

광주시에 5월 한달 동안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납부 마감일은 6월2일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개 자치구와 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

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국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부 연장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6월2일까지 완료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반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김대중 시 세정과장은 “신고 대상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승한 기자

전남도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찾습니다”

15년·상시 고용 10명 이상

전남도는 7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향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을 오는 21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인증제는 전남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해온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총 50개 향토기업을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 10개 사 안팎의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업력 20년 이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었으나 업력 15년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평가는 업력·매출성장률 등 경제적 기여와 사회 공헌·직원 복지 등 사회적 기여, 2개 분야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총 10개 기업이 선정된다.

향토기업 인증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주어지고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시설 18억·경영 5

억), 이자 지원 우대(최대 2.9%),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홍보광고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오랜 시간 지역과 함께하면서 뿌리내린 향토기업이야말로 지역경제의 중추”라며 “이번 인증을 통해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19개 남도정원 산책코스 운영

전남도는 7일 “5월 전남 방문의 달을 맞아 남도의 멋과 풍류를 담은 정원을 여행하는 ‘남도정원 산책’ 코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코스는 전남도와 올해 가을 문을 여는 국립정원문화원이 함께 선정했다.

코스는 모두 19개로 △전통정원, 캠핑 등 ‘테마코스’ 5개 △담양, 구례, 해남 등 정원이 집중된 시군별 ‘지역코스’ 13개 △남도의 주요 정원을 한바퀴 둘러보는 4박 5일 ‘장기코스’ 1개다.

국립정원문화원은 사범사업으로 남도

의 전통정원을 알리고 정원사 양성을 위해 대학생 유주 정원 투어를 추진한다.

정원투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월간 가드닝은 담양권 1박 2일, 해남권 1박 2일, 고흥권 1박 2일 등 남도 정원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에는 국가정원 1곳, 지방정원 2곳, 민간정원 30곳, 전통정원 3곳이 있다.

정근산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몰적몰은 광주 최고 수준의 SCREEN GOLF 시스템을 스크린을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몰적몰은 광주 최고 수준의 SCREEN GOLF 시스템을 스크린을 11실과 부대시설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4부서 공간

B1F_BOWLING
코스소형고 프라이어팅 24라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loor Plan

2 - 3F Screen Golf

1F Fun it, us Cafe & Lounge

B1 Bowling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192(치평동) 구, 상무리소천변선별당을